

6.1 우유의 날 기념행사여기의 현장



지난 6월 1일에는 서울 목동 파리근린공원에서는 세계 우유의 날을 맞아 '도심 속의 목장 나들이' 행사가 개최되었다(낙농자조금 사무국 주최). 이날 행사에는 1만여 명의 도시민들이 찾아 목장체험, 우유요리 시식, 우유 아이스크림 체험 등 다채롭게 마련된 프로그램을 통해 전원생활의 즐거움을 만끽하였다.

특히 행사장에는 목장에서만 할 수 있는 송아지 우유 직접주기, 젖소 건조주기, 손 착유 등을 도심 한가운데서 체험할 수 있는 이채로움에 남녀노소 모두 호기심과 환한 웃음이 가득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우유팻빙수, 우유파전 등 우유요리 시식코너 뿐 아니라 우유 아이스크림을 직접 만들어보는 코너 등에서도 북새통을 이뤘다. 이밖에도 젖소와 함께 즉석 촬영, 캐리커처, 페인팅 등 다양한 코너에도 종일 시민들의 방문이 끊이지 않았다. ☺





제5회 육우데이 기념행사 성황리에 마쳐

▷ 안전하고 경제적인 국내산 육우고기 드세요! ◁
- 6월 8일(일) 농협하나로클럽 양재점서 성황리 개최 -

협회는 지난 6월 8일(일) 농협하나로클럽 양재점(서초구 양재동 소재)에서 개최된 제5회 육우데이 기념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통합민주당 변재일 의원(충북 청원), 농림수산식품부 박덕배 차관 등 내·외빈들과 낙농·육우 생산농가 및 관계자, 소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종료되었다.

국내산 육우고기의 우수성을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며 육우고기의 소비자변 확대를 위해 기획된 이번 행사에서는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육우고기 부위별 시식을 실시하여 큰 호평을 얻었으며, 시식에 참여한 소비자들은 기존에는 육우를 잘 몰랐는데 직접 맛을 보니 가격은 저렴하면서 훌륭한 맛과 품질을 가진 우수한 고기로 평가하였다. 뿐만 아니라 육우 로데오 게임, 육우 홍보부스, 캐리커처 등 다채로운 이벤트를 마련하여 이날 참여한 소비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한국낙농육우협회 이승호 회장은 광우병 위험이 큰 미국산쇠고기 수입으로 식품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상황에서, 평소 고가(高價)의 쇠고기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중·서민층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은 바로, 품질 좋고 안전하면서도 가격은 저렴한 국내산 육우고기임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본 행사를 통해 국내산육우의 소비자 인식제고와 소비자변 확대를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지난 2004년 6월 9일을 “육우데이”로 지정·선포하고, 정기적인 기념행사와 “육우 얼굴찾기캠페인” 등 소비홍보활동을 통해, 국내산 육우고기의 소비자변 확대를 꾀하고 소비자들에게 국내산 육우고기의 참모습을 알리는데 주력해 오고 있다. ☺



식전행사



행사장을 가득 메운 참석자들



인사말을 전하는 라기혁 위원장



축사를 전하고 있는 통합민주당 변재일 의원(충북 청원)



참석 내빈 모두 국내산 육우의 소비확대를 기원하였다.



육우를 메인요리로 한 오찬 자리도 마련됐다.